

윤석열 정부의 '개혁' 드라이브,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?

- ☞ 새해 벽두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참 어마무시합니다. 결연한 '개혁가'의 면모를 보이고 싶어하는 듯한데, 일방통행과 소통 부재의 폭군의 모습이자 개혁의 실체가 분명치 않습니다. 낡은 이념 지향성과 '갈라치기'의 의도가 자꾸 어른거리고 하고요.
- ☞ 그렇다고 해서 수수방관 혹은 '뒷따라가기식'의 방어적 대응' 만으로는 곤란할 듯 합니다.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.
- ☞ 이에 연금-노동-교육 개혁 및 공공·금융·서비스 혁신 관련 대응 입장 정립을 위해 몇가지 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새해 벽두부터 '개혁' 강공 예고 + 속도전 펼치는 윤석열 대통령

- 새해 첫날 단 10분간 TV로 생중계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그리고 신년인사회, 7년만의 경제계 신년회 참석 등이 이어지고 있음
- “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”며 “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, 교육,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”며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
- 3대 개혁 중에서도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▷수요에 맞춘 노동시장 유연화 ▷노사 및 노노(勞勞) 관계 공정성 확립 ▷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언급
 - “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차별화돼야 한다 ...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'노사 법치주의'”

○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

- “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,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…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. 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“

○ 연금개혁의 중요성 언급

- “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어렵다 …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·연구,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”

○ 윤 대통령은 “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 … 2023년 새해, 자유가 살아 숨 쉬고,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자“고 언급

□ 특이한 점은 윤대통령이 3대 개혁을 강조한 반면, 한덕수 국무총리는 ‘노동·교육·연금의 3대개혁에 더해 금융·서비스·공공의 3대 혁신’의 본격적인 추진까지 예고하고 있다는 점임

○ 한총리는 정부 시무식 연설을 통해 “특히 노동개혁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…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과 효용성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에 박차 … 구조개혁 이외 민생경제 회복,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, 지방 균형발전,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” 등을 언급

□ 새해벽두 윤대통령의 메시지는 호소와 설득은 없이 일방적 강조와 선언에만 집중돼 있고, ‘개혁’과 ‘혁신’이 어떻게 구별되고 어떤 상관관계 인지에 대한 설명 같은 것은 없음

○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고강도 추진 의지 표명은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의 자신감에 기반한 듯하며,

- 노동개혁 및 교육개혁과 연계한 전교조 등에 대한 공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보임

- 3대개혁 및 3대 혁신 관련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출범이후 추진해 오고 있는 정책기조 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☞ 공지사항 :

- 연금·노동·교육 3대개혁 및 한총리가 예고한 금융·서비스·공공의 3대혁신 그리고 지방정책 등에 관한 추진 실태와 방향 관련 자료들을 종합해 올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람
- 오늘은 첫 번째로 연금개혁 관련 자료들을 먼저 올리고, 순차적으로 자화해서 배포할 예정임

※ 이 글은 지역혁신정책에 관한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, 전남도당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